



효성 '국군의 날'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효성이 국군의 날을 맞아 호국보훈 사회공헌을 이어갔다. 효성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묘역정화와 헌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제 74회 국군의 날을 맞아 진행했다. 효성 주요 계열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효성



태광산업, 제주관광공사와 친환경 관광경영 MOU

태광산업은 지난 20일 제주관광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공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외 7개사 등 총 9개 기관 및 기업과 제주도 친환경 관광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철현 태광산업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친환경 관광 경영 활성화 MOU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산업



KT, 치매극복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KT가 21일 서울시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극복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좌측에서 세 번째)과 KT ESG경영추진실 장윤형 차장(좌측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KT



신협중앙회, 무형문화재 보존 위한 후원

신협중앙회는 경북공 흥복전에서 문화재청과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후원약정'을 체결하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며 총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 빈순애 강릉단오제 보유자, 안치용 한지장 보유자, 최용천 문화재청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동식 선자장 보유자. /신협중앙회



위니아, 한부모 가정 위한 '베이비 샤워 프로젝트'

위니아는 최근 서울 서촌 '더어버터'에서 '베이비 샤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니아의 베이비 샤워 프로젝트는 한부모 가정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한부모 복지시설과 연계해 쿠킹 클래스, 육아 강좌 등을 진행하며 정서적 위로 및 정신적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위니아

현대차, 친환경 숲 '아이오닉 포레스트' 확대 조성

홍천·군산에 5500그루 심어 숲 해설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현대자동차가 강원도 홍천과 전라북도 군산에서 대규모 숲 조성에 나섰다.

현대차는 올해 4분기 강원 홍천군 내면에 1만6000㎡ 규모의 숲을 새롭게 만들고, 전북 군산시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에는 이달 말까지 300㎡ 면적의 자생정원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의 숲 조성 프로젝트인 '아이오닉 포레스트'의 일환으로,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인 '트리플래닛'이 함께한다. 홍천에 새롭게 조성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포레스트는 3000그루의 구상나무와 2500그루의 아까시나무·물푸레나무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와 꿀벌의 먹잇감인 아까시나무, 산불 피해에 강한 물푸레나무가 생물



20일 전북 군산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인근 몽돌해변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트리플래닛 임직원 및 지역 초등학교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 /현대차

다양성 보전과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는 작년 군산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에 2만㎡ 규모로 조성한 아이오닉 포레스트도 확장한다. 현대차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인근 몽돌해변에 동백나무, 산수국 등 나무 500그루, 비비추·털마루 등 식물 850본으로 이뤄진 자생정원을 이달

(톤)의 이산화탄소와 250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6000여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방문객 중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만 제공됐던 숲 해설 프로그램도 모든 방문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타고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휴양림 내 순환로를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포레스트는 고객과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현대차의 대표 친환경 공유 가치창출(CSV)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여러 파트너와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비롯한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홍천과 군산의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이 완료되면 총 3만6000㎡의 땅에 1만2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숲이 탄생한다.

현대차는 조성된 숲이 연간 85t

현대차그룹, 차량용 SW 혁신성 인정

美 'PACE 어워드' 첫 수상 CCU 개발·양산 적용 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무대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오토모티브 뉴스 PACE 어워드'에서 CCU(차량 유무선 통신 통합 제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양산까지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PACE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오토모티브 뉴스가 주관하는 PACE 어워드는 매년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적 사례를 선정해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의 뛰어난 협업, 혁신 기술, 주목할만한 기술 등 3개 부문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

CCU는 차량 내/외부의 연계 기능 및 데이터 전달을 위한 유무선 통신 통합 제어기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커넥티드 카 서비스 ▲차량 데이터 수집 ▲원격진단 등 진보된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수상을 통해 CCU 개발의 혁신성과 더불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낸 완성차 업체로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과 협업한 소나투스는 실리콘 밸리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 스타트업으로 CCU 내의 원격진단, 차량데이터 수집 등 주요 소프트웨어 모듈을 공동 개발했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이 SDV(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량)에 대한 개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SDV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통신을 관장하는 CCU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전시부스에서 강릉시 ITS 시스템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U+ '교통한류', 글로벌 관심 집중

美서 열린 2022 ITS 세계총회서 강릉시와 지능형 교통서비스 선배

LG유플러스가 강릉시와 함께 선보인 '교통 한류'에 글로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ITS(지능형교통체계)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인 '2022 ITS 세계총회'서 ITS 스마트 교차로·횡단보도 및 주차장 혼잡예보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된 강릉시와 공동으로 지능형 교통서비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유치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전시회 개최지 선정에 기여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강릉시와 함께 '2022 ITS 세계총회'에서 선보인 지능형 교통 서비스가 높은 관심을 받

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ITS 세계총회는 '교통 올림픽', '교통 엑스포'라고 불리는 교통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로, 강릉시는 지난 18일 LA 컨벤션센터에서 경쟁도시인 대만 타이베이를 제치고 '2022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강릉시 IT S 구축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강릉시, 국토교통부 등과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7월 진행된 후보도시 현지실사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미래형 자율주행 셔틀 등을 선보이며 현지실사단의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채운정 기자 echo@

SK이노, 자회사와 부산엑스포 총력 지원

SK이노베이션과 8개 자회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본사 1층 로비 대형 미디어 월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영상을 상영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지오센트릭·SK온·SK루브리컨츠·SK아이이테크놀로지·SK인천석유화학·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어스온 등 8개 계열회사들은 서울 본사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보유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본사 1층 미디어월 앞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는 그룹 차원에서 WE(월드 엑스포) TF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 또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인사

- ◆총남대 ◇5급 전보 △기획평가과장 김윤복 △연구지원과장 조성범
- ◆특허청 ◇과장급 승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진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배홍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안영웅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경아
- 부음
- ▲서경순씨 별세, 박동익씨 부인상, 박

정렬(한국저작권보호원장)·병렬(전 대한항공 기자)씨 모친상, 손희승·임정은 씨 시모상 = 21일 오전 6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02-3410-6902

▲ 오순임 씨 별세, 이해석(남부대 교수·전 중앙일보 광주총국장)·이해준(만오기업)·이해송(한화디펜스고문)·이해승(제이산업) 씨 모친상, 유석(담꽃) 씨 장모상 = 20일 오후 10시, 전북 익산시 동이리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063-843-9202